

# 교육원 연수교육, 순조로운 출발

## 전통불교문화원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 성황리 진행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의 연수교육이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스님들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재교육에 대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아본 스님들은 "좀 더 세련된 불교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8월 18일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는 첫 통학연수에 이어 8월 25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는 숙박연수교육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8월 25~27일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연수에는 29명의 스님들이 신청했다. 연수에는 △설득에 필요한 리더의 자질 △소통영역별 특징과 논의구조 △설득의 기법 △토의와 토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인 의사진행 방법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기 위한 스킬 △갈등관리와 코칭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수업은 실제 참여식 토론방식으로 진행돼 참가자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강태완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스님들은 신도들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가장 어려워했다. 주지



8월 25~27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스님들이 진지하게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스님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신도들과 대화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도 많다"며 "스님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면에서 정리가 안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완 교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리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큰 스님의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소

통방식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설득이 어렵다"며 사안에 대해 토론식의 민주적인 방법을 수업 진행했다.

첫 숙박연수를 받고 있는 덕조 스님(경북 영천 진불암 주지)은 "기존 본말사 주지연수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참가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주지연수 왜 가야하느냐"는 말대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런 강의를 언제 들을 수 있겠냐'라는 반응이다"고 설명했다. 덕조 스님은 "세대 간 벽을 깨고 스님

들 간의 소통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한 장르와 특성, 개인의 효율까지 반영한 것 같아 기대이상의 만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26~28일 '스피치 능력향상'에는 65명의 스님이 신청했다. △각자의 목소리가 최상이다 △눈과 귀와 마음 이야기 △목소리 만들기 △손동작, 시선, 표정, 몸의 여러 가지 동작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목적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스님들은 "다른 사람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대중 앞에서 1분도 못 서있겠다" "법회를 할 때 이야기나 설화를 할 때는 여유롭게 하는데 조리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는 말이 험박이 없다고 한다. 말이 자주 뻘러진다" "시선 처리가 어렵다" "사투리가 심하다" "대중 앞에서 가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선방에서 30인거를 살다보니 팔뚝변이 없다" 등 고충을 털어냈다.

이 수업을 신청한 종률 스님(서울 세광사 주지)은 "새로운 연수교육이 기존 연수교육에 비해 확실히 효율성을 높이고 수업의 질도 좋아졌다"고 말했다. 전법향상, 사찰경영일반, 불교교학, 불교문화실기, 자원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로 진행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내용과 질 강의로 구성됐다. 특히 수업 내용들이 스님들이 기존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영역이나, 알고는 있었지만 기술적인 면에 이해가 부족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연수교육의 방향을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 기고

## 아이들에게 어떻게 무아를 가르칠까?

<無我>

불교의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로 무한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불법은 어떠한 특정한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떠나갈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불교의 가르침이 역사와 더불어 사회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앞으로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불교의 가르침이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되어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다면 불교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명공동체로 잡아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사회, 지구, 우주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 돌아간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초안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개념이 정해졌다 해도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팀이 조직되었으며 여기에는 많은 초중고 현직교사가 개발자로 참여하였다. 개발팀은 월례세미나, 사례발표회, 전문가 특강, 방학 중의 집중 워크샵, 수련회, 인성교육 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교사들이 인성교육을 가르

### 불교의 가르침 문화적 콘텐츠로 개발

#### 불교의 인식 달라질 수 있다

한마음과학원에서 개발한 한나무인성교육프로그램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에 앞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먼저 2004년 초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모한 초등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응모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교육학 전문가와 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기획팀을 편성하고 인성교육의 핵심 개념을 정립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펴나가는 대행큰스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초등학생들에게 무아(無我)를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나'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 커뮤니티이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현대적 해석이며, 이는 학생들이 이미 과학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핵심개념을 생

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인성교육의 실천자가 되는 일이었다. 또한 모든 학교생활을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어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하는 개발팀 선생님들에게 이것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생님들이 가르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 실천하면서 맛보게 된 자기 마음의 자유로움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수많은 분들의 7년 여에 걸친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7월말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인성교육 교재를 출판하게 되었다. 한마음과학원이 불교계 뿐 아니라 국내외의 많은 단체나 기관들과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용환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장



## “4대강 관련 MB 면담도 검토”

### 23~24일 남원 실상사서 실무위원회 열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최종 조율 중이며, 의견이 정해지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8월 23~24일 남원 실상사에서 4대강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회의에는 위원장 도법 스님과 실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4대강 사업의 기술적·환경적·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실무회의의 결과 등을 토대로 9월 중으로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화쟁위원회에 보고한다.

화쟁위는 보고서 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내용을 다듬는다.

화쟁위에서 최종보고서가 채택되면 총무원장스님에게 보고하게 된다.

4대강과 관련한 화쟁위의 입장도 별도로 정리된 의견을 종단 차원의 입장으로 활용할지, 이웃 종교와 연대하는 방법으로 쓸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달할지도 논의 중이다.

백승권 화쟁위원회 사무국장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견 접근을 하고 있다.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어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섭·이상연 기자

## “일본 정부 권력형 범죄 책임져야”

### 기쿠치 유족찾기 지원활동가, 이천오총석탑 반환 촉구

“일본강점기 민간 차원에서 수많은 한국의 문화재들이 밀반출된 것은 일종의 권력형 범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일본 내 민간이 소장한 문화재를 반환하는 일 또한 일본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일본 민간 소유의 한국문화재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인에게서 나왔다.

기쿠치 히데아키 태평양전쟁 유족 찾기 지원활동가(68)는 8월 27일 조계종 총무원과 이천오총석탑 환



일본에 반출된 이천오총석탑.

수위원회가 이천사청에서 개최한 '제1회 이천오총석탑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심포지엄'에서 민간 소장 문화재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확대와 일본인

들의 양심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기쿠치 씨는 옛 일본군 군인·군속으로 2차대전에 강제동원돼 사망한 조선인 2만 여명의 명단을 10여년에 걸쳐 작성해 2008년 발표하는 등 일제로 인해 받은 국가들의 피해사황을 조사해 NGO활동가다. 현재 기쿠치 씨는 일본 내에서 이천오총석탑 환수위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있다.

고려 초 세워진 국보급 문화재인 이천오총석탑은 1915년에 전시 명분으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경북궁으로 옮겨졌다가 1918년 군수품 납품 재벌 오쿠라 가하치로(大倉喜八郎)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미술관 뒤편에 세워져 있다.

노덕현 기자

##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 삶을 코칭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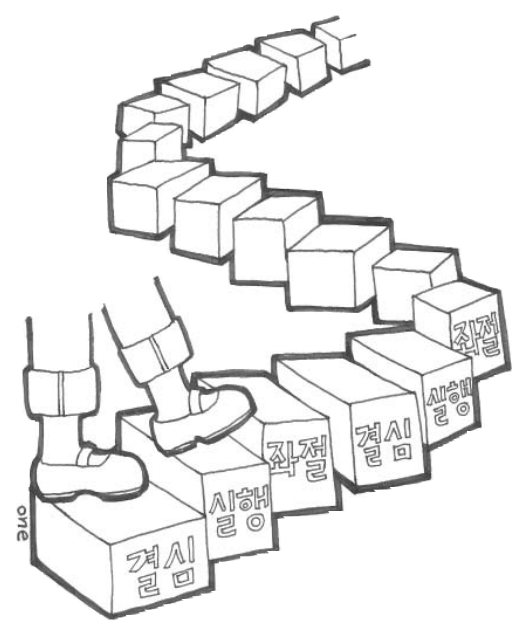
펌프로 물을 퍼올리기 전 물이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 펌프에 부여주는 '마중물', 펌프를 작동 시키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다. 땅 밑을 흐르는 양질의 지하수가 아무리 풍부해도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없으면 이를 퍼올릴 수 없듯이 인간 내면의 잠재력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코칭'이라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마중물의 힘>은 저자가 자신의 인생역정 중에서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코칭이라는 요즘 알려지기 시작한 특수한 기법에 얹어, 단문의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은 하나의 지식이 단지 도구적인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는 지혜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점이 많은 '위기지학' 매뉴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안성두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인생의 모든 답은 누군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그 답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찾고 그 답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코칭은 좋은 동반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궁극에는 '코칭'이라는 말도 버려야 한다고 천명한다. 가장 불교적이면서도 가장 코칭적인 선언이다. 불교도 코칭도 넘어서는 '그 무엇'을 향해 나아가기 때 인간은 완성의 길로 가는 계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보관 스님 (남촌원 자비정사)



코치 허달의 사통팔달

## 마중물의 힘